

## 통역사의 세계\*

임 향 옥\*\*

### Abstract

**Lim, Hyang-Ok. (2003). The World of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stitute*, 7, pp. 159-169.**

Located at the far corner of the vast Asian continent, Korea has, in many instances in the past, distanced itself from the rest of the world. It was not for nothing that Korea was called the "Hermit Kingdom." Interpreters, by definition, usually work by themselves, sometimes with one partner in simultaneous, or less often, with a team of interpreters that can number anywhere from four to twenty or thirty. In such a way, interpreters and Korean interpreters, par excellence, live in a very confined world.

By introducing the activities of groups or associations around the world such as AIIC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etes de Conference) and the KSCI (Korean Society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this paper aims to give Korean interpreters a sense of belonging to a larger group and to spur them into realizing that what they do makes a difference. By doing so,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retaining competent interpreters in the profession.

### I. 들어가기

전 세계적으로 통역·번역 학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 나라에 1-2개 학교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는 파리통역번역대학원(Ecole Supérieure d'Interpretes et de Traducteurs - ESIT)과 통역번역연구원(Institut Supérieur d'Interpretation et de Traduction - ISIT)이 있고 미국에는 몬트레이 통역번역대학원이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대

---

\* 본 연구 논문은 200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학의 응용언어학의 일부인 것처럼 또는 문학번역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주로 국제회의통역과 번역을 지향하는 통역·번역 교육이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설립으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여년 사이에 우후죽순 격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앞 다투어 이 분야에 뛰어 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만큼 이 분야가 세간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졸업하고 몇 년간 국제회의 통역사로써 일을 하다가 통역사의 위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통역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의 통역 교육은 1393년에 설립된 조선시대 사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조 2년인 1393년 새워진 사역원은 지금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당시 즐비했던 육조관청 중 공조의 뒤편에 있었다…사역원에 들어가려면 우선 역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야 했다.” (KBS 역사 스페셜) 이 프로그램이 통역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통역사와 번역사의 위상에 대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는 재정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한테까지 역관의 직업을 권유했던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한 직업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oi & Lim, 2002).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고 무역이 발달되지 않아서 역관들이 상인 역할까지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통역사와 번역사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는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칭찬을 연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역사가 마치 기계의 일부인 것처럼 무시 될 때도 있다. 그 이유는 통역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조직의 뒷받침이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역사도 소속감을 느끼고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통역사 단체가 있다.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etes de Conference -AIIC)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약 2,7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6돌을 맞이하

는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전국적으로 약 16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와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통역사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있는 통역사들의 소속감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려고 한다.

## II.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약자로 AIIC이라고 부르는 국제회의 통역사 협회는 파리에서 설립되어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문기구이다. 총 2,700여명의 회원 중, 400명 이상의 회원들은 국제기구가 많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UN 제네바 본부가 있는 스위스, 독일, FAO 등이 있는 이태리 그리고 미국 순이다. 아태지역에는 회원수가 약 90에 그치는 정도이다. AIIC회원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국적 보다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거주지에 따라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1.1 AIIC 총회

3년 마다 개최되는 총회가 올해에는 1월에 포르투갈 뵘르또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의제를 살펴보면 AIIC에서 어떤 일들을 다루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개회식에는 AIIC 회장이 환영사, UNESCO 국장을 대신해서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 뵘르또의 경찰청장도 역시 축하 그리고 삼빠이오 포르투갈 대통령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유럽연합 대법원의 판사가 ‘직업상의 비밀과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형식적인 개회식을 마친 후 회의 진행이 시작되어 우선 총회 의제가

채택된 후 다카르에서 개최되었던 총회의 회의록이 채택되었다. 그 다음  
은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다카르 총회 이후 사망한  
회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묵념을 했다. (한국의 통역계와는 달리 AIIC  
회원의 평균 나이는 40세 이상이다. 상근 통역사는 정년이 있지만 프리랜  
스로 일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통  
역사도 적지 않다.) 회장 인사말에는 2000년 다카르 총회 이후 경과보고  
형태로 여러 안건에 대해 요약이 있었다. 그 중 국제회의통역사 뿐만 아  
니라 업계와 고용주한테도 회원 자격요건 부여하는 건에 대해 설명하면  
서 상근 통역사와의 잦은 접촉, 입회조건 재검토, 신 정보기술이 통역  
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원격통역 시범, 통역학교와의 접촉, 온라인 메  
거진(Communicate!)의 정기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제고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일거리가 있는데 AIIC에서는 회원들이 무상으로 자진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보고는 우선 ‘New Multilingualism’(NML) 분과위원회 즉, 신다  
언어화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했다. 유럽연합의 회원수가 증가  
하면서 공식언어의 수도 역시 증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 예로는 통역사들이 현지에서 통역을 하게 하  
지 않고 원격통역을 보편화하는 것 또는 ‘B’언어로 통역하는 것과 같은  
안들이 거론되었다. 한국어와 같은 특수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들은 늘  
하는 것이지만 서양 통역사는 ‘into B’ 통역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것도 역시 충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가 없다.

AIIC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그룹 구조가 폐쇄되었고 ‘프로젝트’로 운영  
하기로 해서 신정보기술 프로젝트에서는 원격통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을 고객한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AIIC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  
다. 홍보 프로젝트는 Communicate!이라는 웹진을 현재 3,000명의 구독자  
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는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보  
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범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연 5회로 정기적인 웹진으로 자리 잡기로 했다. BizOrg 프로젝트 즉, 통  
역사의 사업조직에는 자문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문통

역사란 다른 통역사한테 통역 일을 제공하고 고객한테는 통역자문을 하면서 통역사와 고객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통역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가가 없었지만 이제는 구체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private market에 경험이 많은 통역사, 요청이 있을 때 자문, 견적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 통역사들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복사, 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 요청 시 통역 장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이 있다. 법정통역 프로젝트는 격년으로 세미나 개최하기로 했고 상근 통역사 분과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확장과 회귀언어 사용의 증가로 인해 상근 통역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상근 통역사 중에 회원이 아닌 사람이 많아서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 프로젝트는 프리랜스 통역사한테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근 통역사 또는 회사 혹은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통역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순수한 프리랜스는 그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수가가 비싸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AIIC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스 통역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AIIC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에 50주년 행사 준비 프로젝트가 여러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 중 프랑스 지역이 조직한 프랑스 외무성에서의 만찬과 독일 지역이 통역사의 직업에 대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있다. 기술 프로젝트는 회의 시설, 부스, 장비 등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시 연락이 가능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새로 건설되는 국제회의장에 통역 부스 관련 자문을 한다. 그 외에 다른 분야는 통역 직업에 대한 정의와 인정, AIIC史, 연구, 교육, 통계자료, Vega(신인통역사) 등이 있다.

그 다음은 Council Sectors이라고 불리는 이사회 분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국제기구, 예를 들어 UN과 산하기구와의 협상; 이사회 구성(현재는 직역별로 구성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효율성을 고려해서는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AIIC 홈페이지에 대한 발표; 회장 선거(두 후보가 간단한 발표를 한 후 투표가 있었음); 재무이사 선거; 이사 선거; 예산

위원회 보고 등이 있었다.

## 1.2 AIIC에서의 최근 동향

가) 입회요건: 총회의 의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AIIC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에 입회요건에 대한 조건완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전문통역사로 적어도 200일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150일만 해도 입회 신청할 수 있다. 각 언어(A, B, C)에 적어도 50일 동안 일을 했어야 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AIIC가 규정하는 윤리강령을 지켰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AIIC회원인 통역사가 후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씩 검토를 하면 언어배합의 경우에는 A, B, C언어는 모국어, 능동언어, 수동언어로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때에 따라 본인은 'B'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B'라고 신청을 했지만 후원통역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B' 보다는 'C'로 수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어떤 언어배합을 신청했다고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후원 통역사는 적어도 5년 동안 AIIC의 회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후원 서명을 할 때 직접 신청자가 통역을 한 것을 들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신청자가 A-한국어, B-영어 언어배합으로 신청을 하면, 이 언어배합으로 적어도 150일을 일 했어야 하고 그리고 후원 통역사는 한국어가 A이고 영어가 B인 통역사 2명 그리고 영어가 A인 통역사 1명의 후원 통역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후원 통역사가 5명이 있었어야 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통역사들한테도 윤리강령이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윤리강령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 중 통역하면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와 관련해서 통역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외에는 자격 미달인 일을 받지 않고 같은 시기에 중복되게 일을 받지 않고 통역사의 존엄성에 손상을 주는 일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고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도 있다. 이는 부스의 조건,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혼자 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이러한 입회요건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에는 5년 이상 AIIC 회원으로 활동한 통역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서류를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서신으로 요건 중 사정상 지키는 못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입회심사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다. 현재 AIIC 한국회원은 8명에 이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언어배합에 한국어가 있는 통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B 또는 C가 있는 외국인 통역사한테 후원 서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나) 연구: 한국에서는 이제 자리 잡은 통역사의 노동조건, 예를 들어, 1부스당 통역사의 수, 여행일의 보상, 이동방법 등은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데 사실 AIIC가 그 동안에 회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동조건 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AIIC의 여러 문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과 협상할 때도 당연히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직감적이고 과거선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90년 중반에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러한 기준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로 인해서 'Workload Study'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AIIC의 연구위원회에서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AIIC가 업무부담에 대한 연구를 위탁해서 지난 2001년 12월에 완수되었다. 이 연구는 4가지 요소를 검토했다. 즉,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그리고 통역 퍼포먼스를 조사했고 상호관계도 조사했다. 심리적인 요소는 설문조사로 통계를 수집했고 그리고 면담으로 보충했다. 생리적인 요소는 혈압, 맥박 그리고 타액 분비물로 조사했다. (48명의 통역사들이 24시간 동안 측정기를 착용해서 통계를 낸 것이다.) 물리적인 요소는 부스 크기, 이산화탄소, 산소 수준, 습기, 온도, 빛의 강도, 환기, 신선한 공기의 흐름 등을 조사했다. 통역 퍼포먼스는 통역사의 순서 중 시작 그리고 끝에 2분씩을 하루의 일과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측정했다.

물리적인 변수 중 이산화탄소, 산소와 습기 수치는 ISO 기준 보다 대체로 높았지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봤을 때 동시통역은 고 스트레스 직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리적인 통계치와 통역의 퍼포먼스 간의 함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텍스트와 전달방법(속도, 낭독, 심한 액센트, 배경지식 부족, 준비시간 부족)과 부스에 대한 불편 등이 있었다.

그 외에는 AIIC에서 자체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회원들 중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결시켜주고 또 세미나, 심포시움 등이 개최될 때 웹을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다) 전산화 aiic.net, Communicate!: AIIC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은 지역별, 언어별로 필요한 통역사를 찾을 수 있고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관련 규정, 문서 등도 제공이 되어 통역에 대한 관심 있는 통역지망생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 2회 AIIC회원들은 일종의 뉴스레터인 Bulletin을 받아서 그 동안의 있었던 AIIC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외에 1999년부터 Communicate!는 웹사이트에만 볼 수 있는 전자저널이며 약간 학문적인 논문도 실리고 홍보성 기사도 있다. 격월로 나오는 이 웹진에는 원거리 통역, 통역교육, 통역에서의 신기술, 법정통역, 통역 연구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라) *Interpretes san Frontieres*: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9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AIIC 회원 중 때에 따라 통역사들도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 없는 통역사(ISF)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2001년 7월에 이사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어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2년 7월에 이사회가 ISF 워킹그룹의 제안을 받아드려 2003년 1월 총회 때 상정할 수 있게 했다. ISF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도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ISF의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양질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ISF는 프랑스 법을 따라 독립된 비영리 협의

체의 형태를 갖추도록 구상이 되었다. ISF 운영은 회원 중 관심 있는 몇 회원이 연락담당 하고 자원봉사 리스트를 계속 관리하며 각 지역별로 연락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총회 때 논의가 됐을 때 반대하는 회원들이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 회원들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AIIIC 기준에 맞는 조건들이 받아드리기 어려운데 만약에 실력 있는 통역사들이 자원봉사로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통역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는 통역사들은 오지에 가서 관광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험값으로 통역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통역사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 III. 아시아

#### 3.1 한국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에 속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주로 에이전시와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주로 졸업생들한테 통역 일을 알선해주지만 통역계의 권익보호 단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산하 통번역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산하 통번역센터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번역학회는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번역사와 교수 등이 회원에 포함이 된다. 그 보다는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는 전문 통역사·번역사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단체이다.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는 1998년 4월 18일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문 통역사·번역사들이 모여서 연구, 권익 보호, 친목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생긴 것이다. 초창기에는 연 1회에 심포시움이 개최되고 논문집이 출판되었는데 2002년부터 연2회에 전국적인 논문집이 출판이 되고 올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받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 이외에 2003년 1월부터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국제저널도 연2회에 출판하고 있다. 포럼지는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와 소르본대학교 출판

사가 공동발행하는 국제저널로 전세계적으로 동서양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유일한 저널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메타, 바벨, 타겟 등과 같은 통번역 학술지가 있었지만 모두 서양의 초점에 맞추어진 논문집인 반면 포럼지는 동서양이 함께 손잡아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십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통역교육이 20여년 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통역이 그에 걸맞는 위상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통역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선두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만큼 통역학교가 많은 나라도 없고 그리고 역사도 길기 때문이다.

### 3.2 일본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서간다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지만 통역·번역 분야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약 20년 뒤진다고 볼 수 있다. 오래 동안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통역번역 교육을 하지 않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일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이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통역번역 강좌를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안 있으면 대학원에서도 정식 프로그램이 출범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연구분야에서는 모태인 Interpreting Research Association of Japan에서부터 Japan Association of Interpretation Studies가 2000년 9월에 새출발하여 Interpreting Studies지의 창간호가 2000년에 출판된 후에 매년 논문집이 출판되고 있다.

## IV. 결론

총회 의제의 요약을 보더라도 AIIC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통역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젊었을 때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잠깐 밟는 디딤돌로 생각하거나 또는 통역사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다가 더 매력적인 일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전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역사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원들이 시간과 자비를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소속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에게 대해 평가를 내릴 때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역사 특히 프리랜스 통역사는 한국에서는 ‘회귀종’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혼자 아님 동시통역할 때는 둘이서 잠깐 팀이 되어 통역하지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은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져서 프리랜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 졸업생들이 있지만 막상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맞지 않다고 느껴서 어디에 소속하고 싶다고 하는 통역사도 있다. 어느 한 쪽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IIC이라는 대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AIIC Bulletin. Special Assemblee. Vol. XXXV, no.4, November 25, 2002.  
 AIIC Bulletin. Vol. XXXI, no.1, March 15, 2003.  
 Choi, J.W. & Lim H.O. (2002). The Statu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Korea. *META*. 47, (4), pp. 626-635.  
 KBS 역사 스페셜 2000년 9월 27일 방송.